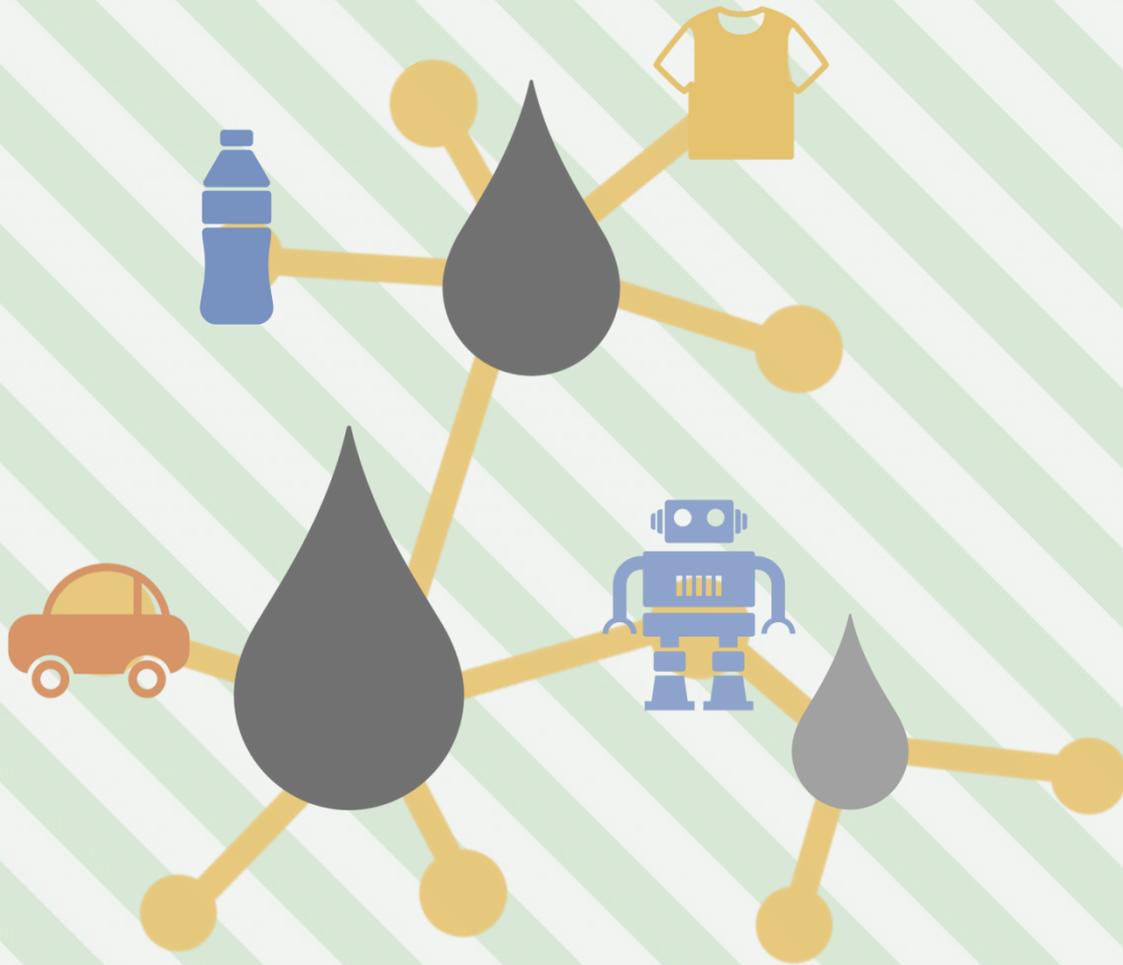


석유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4월 22일 '지구의 날'





장난감, 반찬 통, 컴퓨터, 옷, 이불, 가방, 자동차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석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화석연료지만,
아직도 석유 사용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석유, 정말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검게 변해버린 바다//멕시코만



2010년 4월 20일 멕시코만에서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석유업체 비피(BP)의 시추선이 폭발하면서 기술자 11명이 숨지고, 490만 배럴이 바다로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 터져버린 관을 막기는 힘들었고 87일 만에야 겨우 석유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검게 변해버린 바다//멕시코만



**멕시코 걸프해 남쪽에서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 수는 무려 1,300마리나 됐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시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위험한 선택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주로 변해버린 석유//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나이지리아 남부에 있는 니제르 델타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기로 유명합니다. 축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던 석유는 지역을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돈에 눈이 먼 정부와 다국적 기업 때문이었습니다.

저주로 변해버린 석유 //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강물과 숲은 모두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원인은 바로 낡은 송유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 회사인 로열더치셸그룹은 유출 된 기름을 막고, 손해 배상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저주로 변해버린 석유 //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전 세계 시민 단체들의 도움으로 주민들은 6년의 싸움 끝에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인당 366만원.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많은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마실 물이 오염 되고, 생계 수단을 잃은 주민들에게 새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저주로 변해버린 석유 //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처참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안 잡혀요. 잡은 고기들도 기름 냄새가 나서 팔 수 없고요." -파이어스 팡고-

"애들 학교 보낼 돈이 없어요. 등록금 대신 잡은 고기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학교에 사정도 해봤어요." -비툼-

저주로 변해버린 석유//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원유로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1조원
걸리는 시간 30년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 보다 900배 이상 많은 물을 마시는 주민들
366만원으로 이 모든 게 보상이 될까요?

석유를 둘러싼 전쟁 // 걸프전



석유는 전쟁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쿠웨이트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고,
이라크 석유를 채굴해 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쿠웨이트 침공이 부당하다며
이라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1991년 걸프 전쟁이 일어나며 이라크는 항복을 했습니다.

석유를 둘러싼 전쟁 // 걸프전



이 때, 바다로 흘러나온 석유는 2억 4천만 배럴이 넘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기름 유출 사건으로 그 면적이 하와이보다 넓었습니다.
석유를 둘러싼 전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3년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 2011년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
게다가 센카쿠열도를 차지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분쟁,
카스피해를 둘러싼 나라들의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기름이 삼킨 바다//태안반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7년 12월, 삼성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거대한 기름띠가 태안 반도를 뒤덮었습니다.
태안군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
도움을 건넌 것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100만 명의 시민들은 기름 때를 없앴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는 몇 십 년을 반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가져온 저주를 풀 수는 없을까요?**

캘리포니아의 조용한 에너지 혁명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문제가 경제 성장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30년까지 에너지의 50%를 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제대로 실행되고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의 조용한 에너지 혁명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3,500가구 이상이 태양열 에너지 패널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랭커스터 지역에서는 새로 건축되는 모든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청정 전기 비율은 26%에 이릅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적극 관심을 보이는 곳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덴마크는 40%, 독일은 30%가 넘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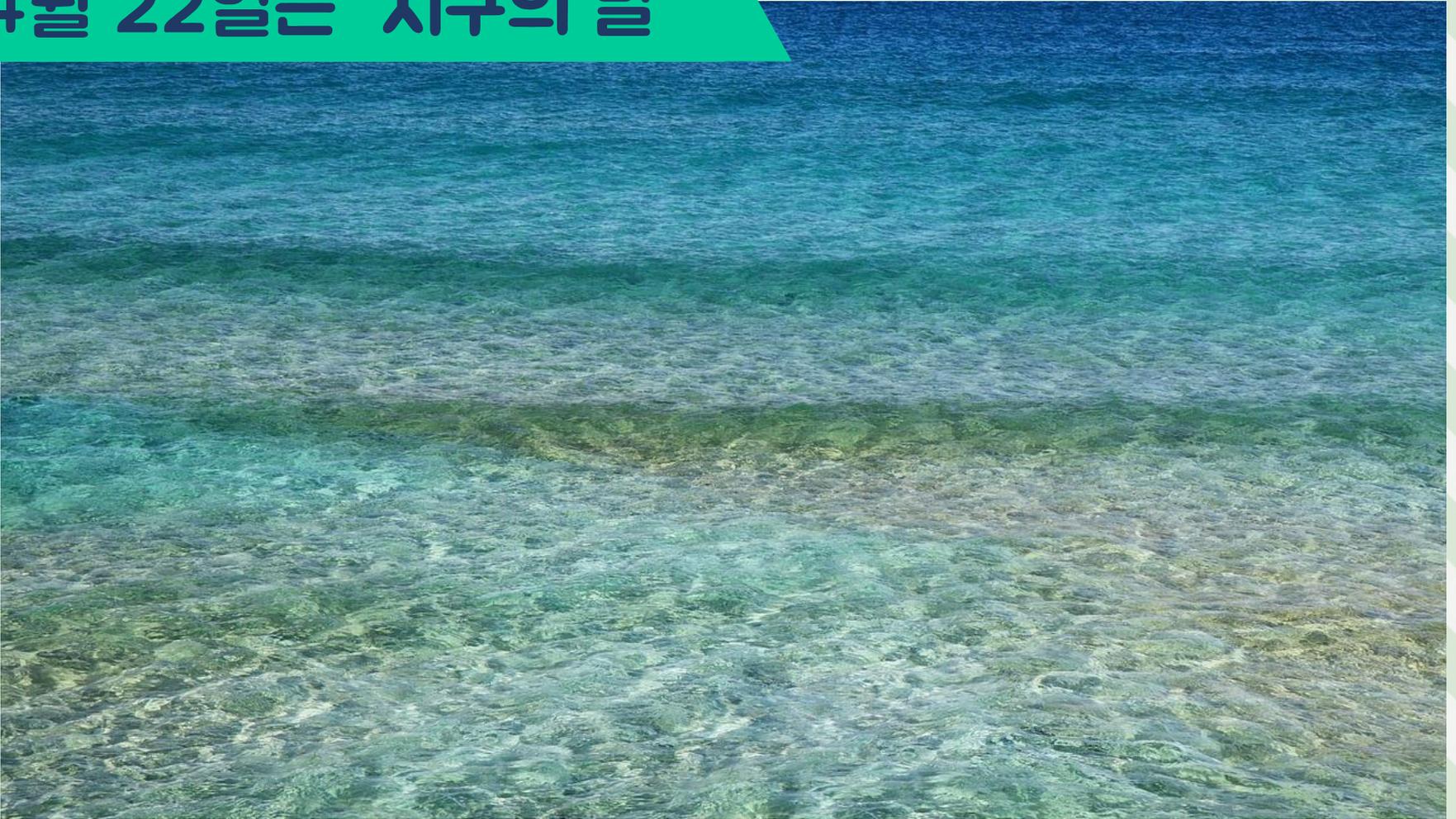
지구의 날이 만들어진 배경에도 석유가 있습니다. 1969년 1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유니언 오일이라는 정유 회사의 시추 시설이 파괴되면서 10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이 결과 아름답던 파란 바다는 검게 물들었고,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



바다가 검게 변한 다음 해 4월 22일,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은
대학생 데이즈 헤인즈와 함께 지구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만 무려 2천 만 명.
이렇게 시작된 지구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2009년 유엔은 이 날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



흔히들 바다를 두고 한없이 넓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름이 흘러가도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모이고 모여,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 속 생물들은 물론, 해안가 주변의 주민들은 역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석유 사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시민교육
보니따

© Bon Idea To Action, Bonita
www.ibonita.org

보니따 소식이 궁금하다면
보니따 공식 페이스북 좋아요 👍 를 눌러주세요
facebook.com/ibonita2016